



“50년 외길... 수채화 사랑”

강연균씨 14년만에 서울 노화랑에서 개인전

‘남도산하’ 등 신작 43점

중진 작가 강연균(사진)씨는 ‘과작(摹作)’의 화가다. 항상 새 작업을 추구하다 보니 고민이 많아지고 작업도 느려진다고 한다. 50년 가까이 붓을 잡았지만 그는 고정된 스타일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세계를 치열하게 추구하는 미술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는 작품이 작기 때문에 스스로도 “시장논리”와 거리가 먼 작가”라고 자평할 정도. 그런 그가 14년 동안의 집묵을 깨고 서울 노화랑에서 4~18일까지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엔 선보이는 작품은 석류, 모란, 여인 누드, 남도산하 등 신작 43점.

서정성과 사실성을 겸비한 작가로 꼽히는 강씨는 섬세한 필묵과 색채감각 등 원숙미를 드러낸 작품들로 관람객을 만난다.

그가 3년 동안에 걸쳐 화폭에 담았다는 여수 사도의 ‘얼굴바위와 잠군바위’는 80년대 격동기를 살아온 작가의 삶이 녹아 있는 작품이다. 60대 중반인 강씨는 자신을 민중미술



‘모란’

작가로 여기는 게 부담스럽다고 한다. 모든 삶이 변화듯이 작업도 현재 진행형인 데 고정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백합, 모란, 설도화, 국화 등 강씨의 손길을 거친 꽃들은 이념과 사상을 내려놓는 대신 진중한 아름다움을 가진 순수한 자연의 모습을 담아 있다.

남도산하를 담은 풍경들은 현장 스케치를 고집하는 작가의 탐과 함께 노련한 붓터치를 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작은 마을의 풍광을 캔버스에 담은 ‘정미소’와 고즈넉한 농촌 풍경을 형상화한 ‘양광(陽光)’, ‘국동마을’, ‘봄날’ 등은 현

대인들에게 잊혀져가고 있는 고향을 일깨워준다.

강씨는 이번 전시에서 자신이 즐겨 다루는 소재인 석류, 모란, 누드 등을 탁월한 묘사력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작가의 섬세한 붓질로 인해 화폭에서 또 다른 생명력을 얻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자신의 작업을 결산하는 세번째 화집(열화당)을 내기도 했다. 작품집에는 1993년 ‘강연균 수채화 30년전’ 이후 약 14년 동안 그려온 최근작 70여점이 실려 있다.

이태호 명지대 교수는 “강씨는 최근 세피아색(갈색)을 바탕으로 한 수묵경향의 작품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작품 가운데 ‘불상(佛像)’은 통일색조의 점으로 배경을 묘사한 것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작가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금호예술상, 5월 광주시민상, 광주시미술대상상을 수상했으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공동회장, 광주시립미술관장을 역임했다. 문의 02-732-355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맛깔스런 우리 옛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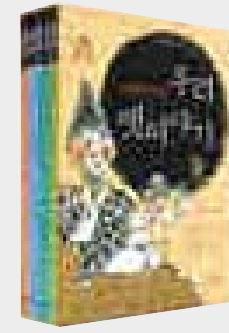
소설가 송기숙씨 민담집 ‘중학생을 위한 우리 옛이야기’ 내



장흥 출신 소설가 송기숙(72·사진)씨가 청소년을 위한 민담집을 냈다. ‘중학생을 위한 우리 옛이야기’(전 6권·참비)는 설화의 느낌이 잘 살아있는 53편의 이야기들을 저자 특유의 입담으로 풀어쓴 책이다. 저자가 풀어놓은 이야기 보따리 속에 옛이야기의 참뜻과 이에 반영된 사회상이 잘 나타나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옛날이야기는 이야기 자체로만 보면 허황하지만 그 속에는 허황하지 않은 뜻이 숨어 있다. 그 뜻은 역사나 사상의 어떤 문헌에 담긴 것보다 더 깊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우리 옛이야기 아동용 ‘전래동화’의 형식으로 수용돼 축약·희화화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교훈이 강조됐다고 꼬집는다. 시리즈의 제목에 독자층을 특



정한 이유는 본격적으로 문학을 배우게 될 ‘중학생’들이야말로 사회상이 드러난 보편 문학 장르 ‘민담’을 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욕심 많은 호랑이가 두개비의 꾀에 넘어가는 이야기(1권 ‘호랑이가 두개비 골탕 먹이려다’), 거들먹거리는 대강과 아들이 간담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에 창피를 당하는 이야기(4권 ‘정승 장인과 간담 사위’) 등은 우리 옛이야기 특유의 재치와 해학이 잘 나타나 있다.

또 잔칫집 풍경이나 과부 보살, 장기관

모습 등에서 우리 조상의 풍속이 드러나고 가난한 집의 제사 걱정이나 양반 때문에 눈에 물대기를 못하는 농부의 걱정을 맛따뜨릴 때는 민초들의 생활상이 엿혀진다.

저자는 책의 말미에 중·고교 교사들과 대담의 형식을 빌려 이야기의 숨은 뜻을 자상하게 풀어 설명한다.

저자의 구수한 입담에 걸맞은 개성 만점의 삽화는 이광익, 한상연, 이승현, 홍선주, 윤보원, 객재연씨 등이 그렸다.

저자는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사랑방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살려 보고자 옛날 사람들이 자주 쓰던 속담을 일부러 많이 썼고, 각 권 끝에 해설 대담을 비교적 자세히 붙였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日帝 강점기 ‘초등학교 수신서’

‘日帝 탐색’ 김순전 교수 등 8명 5권 번역·출간

“우리들은 언제나 황실의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고, 대일본제국의 신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충군에극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1918년 보통학교 4학년 수신서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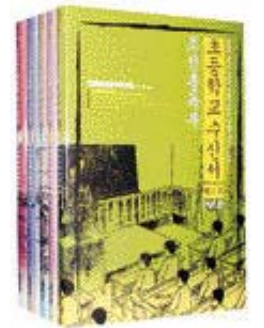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 우리 조상들은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했을까.

김순전 전남대 일본학과 교수 등 광주·전남의 일본학자 8명이 ‘조선총독부 초등학교 수신서(修身書)’(전 5권·제이앤씨)를 번역·

출간했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한 뒤 어떻게 초등학생들을 가르쳤고, 가치관과 국가관을 지배하려 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1권은 1911~1921년, 2권은 1922~1927년, 3권은 1928~1938년, 4권은 1938~1941년, 5권은 1942~1945년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실었다.

교육정책과 동화정책의 시도, 문화정치와 내선융화 강조, 실천도덕 중시, 황민학교육



강화, 전시 체제의 군사적 내용 강화 등 시기별로 일제 교육정책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 역사 연구의 실증적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책 출간은 지난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에 선정돼 수행한 ‘조선총독부 발간 수신서를 통해 본 일본제국 만들기 분석·소설하는 제국주의 일본의 원류 탐색’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대자연 오방색의 향기

강봉규 사진전 31일까지 담양 명지미술관

사진 작가 강봉규씨가 토속적인 색감을 간직하고 있는 꽃을 주제로 오는 31일까지 담양의 명지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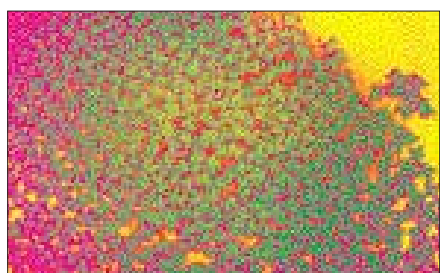
강씨는 ‘강봉규의 꽃길 산책’이라는 제목의 전시에서 한국의 전통색인 오방색을 띠고 있는 꽃들을 통해 다양한 색깔과 향기를 전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주변의 풍광, 빛

등 자연환경 속에서 핀 꽃들. 작품들은 모두 꽃잎에 투영된 아름다운 색깔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영글에 포착된 토종꽃들도 눈길을 끈다. 도라지, 무궁화, 개구리밥, 과꽃 등은 수수한 우리색을 갖고 있는 야생화다. 강씨는 이같은 작업을 바탕으로 문화상품을 개발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한국사진문화상,



‘개구리밥’

광주시민대상을 수상했으며, 국전초대작가, 전남도미전, 광주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 중이다. 현재 담양군 고서면에서 ‘명지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1-383-2577.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젊은 예술가들의 다양한 춤사위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6일 ‘광주현대춤 페스티벌’

젊은 예술가들의 다양한 춤사위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열린다. 임지형 & 광주현대무용단이 주최하는 ‘2007 광주현대춤 페스티벌’이 6일 오후 6시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는 광주와 전북에서 활동 중인 광주현대무용단(안무 박종임), 강명선 전주현대무용단(안무 박종선), JH성지현무용단(안무 박종선), JH성지현무용단(안무 성지현), 조소희 무용단(안무 조소희), 박주희 그랑 무용단(안무 박주희) 등 5

개 단체가 참가한다.

광주현대무용단은 채훈화 김소영 한은정 김현경 홍기준 황은성씨 등이 출연한 ‘돌아보다’를 무대에 올린다.

강명선 전주현대무용단은 ‘들꽃’, JH성지현무용단은 ‘Rainbow’, 조소희 무용단은 ‘Change’, 박주희 그랑 무용단은 ‘Life Story’를 각각 선보인다. 문의 062-230-7423.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10월10일 ‘문화원의 날’ 제정

내년부터 ‘문화원의 날’이 제정돼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224개 지방문화원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전국문화원연합회(회장 권용태)는 2일 “내년부터 매년 10월 10일을 ‘문화원의 날’로 제정해 프로그램상, 지역문화 메세나상, 문화공로상 등 부문별로 ‘올해의 문화원상’을 시상하고, 지역간 문화교류마당, 향토문화연구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원연합회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문화비전 선언식’을 통해 ‘문화의 날’ 제정 계획을 발표하고, 다문화 시대를 선도할 지침을 담은 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movies 인기영화 즐겨보는 시간 보러가요

Happy Time

영화안내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역사거리 ☞에메1544-0600

1관 러시아워 3 (15세)	최고급관
2관 스테이지 뷰티 (18세)	
3관 내니 다이어리 (12세)	
4관 본 얼티메이텀 (12세)/인베이션 (15세)	
5관 사랑 (15세)	
6관 아드레날린24 (18세)	
7관 행복 (15세)	
8관	
9관 즐거운 인생 (전제)/상사부일체 (15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다이얼이 종료됩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이금 부과 ★무로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www.entrercinema.co.kr

엔터시네마

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행복 (15세)	
2관 인베이션 (15세)/두얼굴의 여친 (15세)	
3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 (15세)	
4관 본 얼티메이텀 (12세)	
5관 사랑 (15세)	
6관 즐거운 인생 (전제)/ 화려한휴가 (12세)	
7관 상사부일체 (15세)	

www.entrercinema.co.kr

* 넓고 편안 국내·옥외 주차장 300대 *

* 낮고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

www.joycine.com / 1588-7941

컬럼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대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 뒷편)

1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 (15세)	
2관 내니 다이어리 (12세)	
3관 인베이션 (15세)/행복 (15세)	
4관 행복 (15세)	
5관 아드레날린24 (18세)	
6관 사랑 (15세)	
7관 두얼굴의 여친 (15세)/즐거운 인생 (전제)	
8관 인베이션 (15세)	
9관 상사부일체 (15세)	
10관 러시아워 3 (15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메입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성명연결 방법

4천or 2천or 1천

www.cinusa.co.kr /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사랑 (15세)	
2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 (15세)/두얼굴의 여친 (15세)	
3관 러시아워 3 (15세)	
4관 본 얼티메이텀 (12세)/인베이션 (15세)	
5관 즐거운 인생 (전제)/상사부일체 (15세)	
6관 행복 (15세)	
7관 내니 다이어리 (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독자 사무(모바일·캐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www.mo12.co.kr / 1588-9101

무등극장

총장로 1가 ☞ 232-9106

1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 (15세)	
2관 상사부일체 (15세)	
3관 행복 (15세)	
4관 내니 다이어리 (12세)	
5관 사랑 (15세)	
6관 아드레날린 (18세)	
7관 인베이션 (15세)	
8관 본 얼티메이텀 (12세)	
9관 러시아워 3 (15세)	

* 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제일시네마

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행복 (15세)	
2관 러시아워 3 (15세)	
3관 내니 다이어리 (12세)	
4관 사랑 (15세)	
5관 상사부일체 (15세)/인베이션 (15세)	
6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 (15세)/두얼굴의 여친 (15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